

축사



이기성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 올해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한국세라믹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어 오시고, 고분자 공학과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해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976년 학회를 설립하신 이래 한국고분자학회는 이제 첨단소재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학회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계십니다. 초기의 범용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관련 산업으로부터 이제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복합재료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와 바이오 및 의료 소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미래 산업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강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귀 학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 모든 분들의 학문적 열정과 그에 기반한 산업화의 열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기술의 융·복합화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공지능기술의 확산과 탄소중립 등의 기후 문제 등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 가운데 고분자를 필두로 한 첨단 소재와 복합소재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세라믹학회 역시 첨단 소재의 물결 가운데 글로벌 경쟁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폴리머 기반 세라믹스 복합재료와 같이 경량성과 우수한 성형성을 보유한 고분자 소재와, 우수한 내열성과 내구성, 고유한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세라믹스 소재와의 융·복합은 기존 단일 소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핵심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분자 분야와 세라믹스 분야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50년, 100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이 시점에서, 소재 분야의 학회와 산업계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융합하며, 각 학회 소속의 산학연 기관이 하나 되는 융합 연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50년간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경제를 다지는 역사였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50년, 100년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발판 삼아, 최고의 학술 단체로 비상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이기성